미래핵심역량 6C 제시

도교육청, 도내 초·중등교원 참석 '현상기반학습 특강'

강사 참여 김현정 교사 "협력·비판적 사고 등을 의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래핵심역량 및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현상기반학습(PBL, Phenomenon Based Learning) 특강을 마련했다.

현상기반학습(PBL)이란 학생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학습주제를 정하고, 통합적·융합적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법이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특강에 도내 초·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서울북구교육청 연구교사이자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교육의 답을 찾다'의 옮긴이 중 한 명인 김현정 교사가 참여했다. 김 교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교육의 큰 축인 미래핵심역량과 현상기반학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현상기반학습을 우리 교실에 적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현정 교사는 "미래핵심역량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발달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R. Golinkoff 교수는 6C를 제시하고 있다. 6C는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사고, 창의적혁신, 자신감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미래핵심역량 및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중 하나가 현상기반학습"이라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8일 전주 왕의지밀 호텔에서 '유튜브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지혜로운 미디어 교육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혜로운 미디어 교육 활용법은?'

도교육청, 하반기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 왕의지밀 호텔에서 '유튜브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지혜로운 미디어 교육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단,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포함해 초·중·고 미디어 리터러시 관심 교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디지털 무한정보 환경에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과 허위 왜곡정보를 피해 지혜롭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의 공감대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디지털 무한정보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획하고 실행할 교원에게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송규정)은 2023학년도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심화과정은 수학과 과학, 융합 분야에 각 17명을, 중등심화과정은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SW) 분야에 각 15명씩이다. 일반전형 외에도 정원 외로 사회통합 대상자전형을 통해 각 분야 3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사이트(http://select.gifted.a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초등심화과정의 지원 자격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이며, 중등심화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11월 19일 창의적문제해결능력검사인 1차 전형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12월 3일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select.gifted.ac.kr)나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063-270-360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에 설립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대안교육 한마당 행사' 개최

위탁교육 기관 학생 80여명·교사 31명 참여

스포츠클라이밍·복합 모험활동 등으로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학생수련원에서 '2022년 대안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학생 80여 명과 교사 31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라이밍, 복합 모험활동, 레크리에이션, 안전교육, 공동체 활동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연속에서 스포츠, 모험,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도전 의식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의 재발견, 다시 톺아보는 인문학'

전주대 '온다라 인문 주간행사'… 24~30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24~30일 '전통의 재발견, 다시 톺아보는 인문학'을 주제로 '2022 인문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진행된다.

임철민(융합디자인학과 초빙교수)와 함께하는 온라인 강의 '전통문화 유산의 이해와 접근'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제1강 전통 지호공예, 제2강 전통 지승공예, 제3강 목칠공예, 제4강 전통 붓'을 주제로 총 4강이며, 감상평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jac.kr/hk/)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jjondara), 인스타그램(jjonda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30여일 남은 대입 수능… 전략은?

"실전감각을 익혀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생은 1만7,100명으로,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험지구 및 군단위 70개 시험장, 736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지난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경향 등 참고해 준비

주2회 모의고사 문제지 시험 시간대 맞춰 풀어봐야

이날 도교육청은 수능 30일 앞두고 막바지 수능 전략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출제 방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므로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 및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취약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문제 풀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적어도 주2회 모의고사 문제지를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춰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 특히 정해진 시간보다 약간 시간을 단축해서 연습해야 수능에서 시간 부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모의고사에서 틀린 개념들은 수능에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수시 지원자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보다 앞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시간을 더 할애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능 최저 달성에 필요한 등급 취득이 가능한 과목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정시까지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은 모든 영역을 고르게 준비하면서, 지원할 대학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영역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실 염지혜 교사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실수는 실제 수능에서의 실수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사소한 실수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실 조장익 교사는 "수능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수험생의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방역 및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권센터 전주 여성의 전화와 협약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전주여성의전화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는 소현성 센터장과 임미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안 해결을 위한 협력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공동 추진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소현성 센터장은 "양 기관이 성평등 문화와 인권을 위해 서로 돕고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11월 2일 전주대학교 진리관 217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중 강좌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인권센터(063-220-2406~8, 258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9일 예비 초등교사의 인문학 소양 증진 교육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재학생 40명이 참여, 독서습관연구소 모두북 김연옥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펼친다.

이날 김연옥 대표는 성인 독자들이 그림책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림책을 놀이와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교대 도서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일상생활 속의 인문학 위치를 재조명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그림책 수업의 올바른 방법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배워 초등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능력을 배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종자산업과 부스를 찾아 김단비 교사와 반현정 학생(종자산업과 2년)을 격려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국제종자박람회 부스 참가

전국 유일 종자산업과 운영… 농식품부장관 방문·격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종자산업과는 지난 13~15일 3일 간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진행된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3일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학교 홍보부스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종자산업과는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종자산업 및 시설원예분야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학과인 종자산업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종자코팅·조직배양·파프리카 수경재배 등의 실습 결과물을 전시해 종자산업분야 인력양성의 요람임을 알렸다.

특히 3학년 개인 프로젝트 발표 대회, 포트폴리오 전시회 등 다양한 교내외 대회에 출품했던 학생들의 자료와 실습일지 등의 교육 결과물들은 많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관학협력 동아리 'K-SEED 서포터즈' 학생 15명은 박람회장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김용재 교장은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의 메카인 김제에 있는 전국 유일한 종자산업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교사연수 등 산학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오는 20일까지 신입생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내일 전통음악 이수 발표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교내 황학당에서 전통음악 교육과정 이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음악 교육과정은 재학생 38명이 참여, 지난 5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통(단소, 관소리, 시조 등) 및 개별(전통합주, 국악관현악)과정으로 운영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초등 교육현장에서 전통음악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수 발표회는 음악교육과 이상규 교수가 해설하고, 전주시립국악단 이민주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단소제주, 25현 가야금 독주, 전통 및 창작음악 합주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박병춘 총장은 "그동안 전통음악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을 쌓고 성장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많은 분들이 자리해 줘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